

대한민국 보수는 말한다



"한미공조 민세, 대한민국 만세" 예국기와 함께 미국국가 '설조기'가 열린하거'가 물려 퍼졌다. 대형 태극기와 설조기, 유엔(UN)기가 나란히 걸려있다. 지난 3월 1일(토), 시청 앞 광장에서 열린 '반핵반김' 대회(反核反金) 자유운동 3·1절 국립대회' 현장이다.

북한의 김정일 국방위원장 등상은 본다 민든 모임 김정일 등상이 무너졌다. 모임 등상이 대형 인공광과 함께 불태워지는 순간, 참가자들은 '자유민주주의' 체제 수호'를 구호를 외쳤다. 대형 모임에 참여한 4월 19일(토) 당시 시청 앞 광장에서 열린 '반핵반김' 자유운동 4·19 청년 대회'에서 알아난 일이다.

우리나라의 이른바 '보수 세력'의 요즘 활동이 예사롭지 않다. '보수'를 자칭하는 몇 명의 인파가 물러나와 시청에서, 거리 곳곳에서 시위를 벌이고 있다. 반핵반김 자유운동 4·19 청년 대회'에 참가한 박근 전 유엔대사가 '미국 보수 자유민주세력이' 이어서 눈을 빛냈다면서 '청후 6·25·8·15(광복절) 등에도 계속 집회를 할 것'이라고 밝힌 것은 의미심장하다.

촛불시위 반작용, '보수' 움직임 불발
언제부터 '보수' 세력의 움직임이 활발해지기 시작했을까. 많은 이들은 최근 미군 장갑차 살인사건으로 충분한 촛불시위가 질질에 달렸을 때부터라고 지적한다. 시민들은 광화문에 모여 '종합미군관습'을 외친 지 1년여 후인 1월 8일(수), 오전 미 공군기지 앞에서는 우리단체들의 '북핵지지 미군관습반대' 집회가 열렸다. 이날 한 언론자는 "요즘 청년들은 좌익이 무었인지, 우익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광화문에서 촛불을 들고 날리를 한다"며 촛불시위를 비난

했다.

올해 들어 촛불시위에 참여하는 시민의 수가 줄어들며 유티케이션들이 목소리는 높아져갔다. 대체 두 번째 촛불시위가 열린 1월 11일(토), 시청 앞 광장에서 한국기독교연합회(한기총)는 '나리와 민족을 위한 평화기도회'를 열어 '미군철수연대'와 '반핵반미'를 외쳤고, 19일(일)에는 5만여명의 인파가 물러 '한국과 미국은 협력의 우호관계'라고 주장했다. 당시 〈월간조선〉 26호 표지는 '청년 우파들은 미국 기독교의 평화'이라는 제목으로 내용이 다룬다.

보수·우의의 진정한 의미는?
이념논쟁은 그 자체로 비랄죄이다. 하지만 많은 이들은 현재 우리나라의 '보수', '우의'이 진정한 의미에서 보수와 우익인지 진단해 볼 필요가 있다. 북한의 보수주의는 아님이 아니라 재 기득권을 자기기 위해 차세대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일단 보수의 우의의 의미를 살펴보자. '우의'이라는 말은 불어와 관련해 수립된 것이다. '우의'과 '좌의'라는 말은 1789년 프랑스 대혁명 이후 정립된 개념으로, 원인이 금지적·혁신적·경파를, 오른쪽이 점진적·보수적·경파를 뜻하는 양극적 학제이다. 프랑스 대혁명은 이후로 '보수주의'라는 정치 이데올로기로 성쳐 있는데, 이때 '자유주의'와 '사회주의' 또한 등장했다. 혁명전후로 형성되고 변모해온 보수적·점진적·급진적·정치적 주제로 등장한 만민의 주권과 국가 문제를 뒤집어쓰고 본격적인 탐험과 대립에 들어간다.

이제 보수주의는 '민주주의'의 실제로 자유

주의가 설정한 '개인'을 곧 사리자비라는 그림자와 같은 존재로 보고 기록, 자자단체, 교회, 전통적 질서와 같은 사회집단들에 중요성을 부여했다. 변화를 막거나, 변화의 속도를 가장 느리게 할 수 있는 이러한 정치집단에 대한 보수주의의 선호는 지금까지 그대로 유지되고 있으며, 변화가 정상적인 것으로 된 현대사회에서 변화의 위험들에 대해 전통을 안정화하고 고수하고 있다. 이를 볼 때, 보수주의라는 의미는 '사회

민족문제에 대해 극우적 반응까지 보이는 서구의 '우익'과는 달리, '도마에 다른 어느 나라에 민족의 체제를 인정하는 보수가 존재하느냐'는 말이 나올 정도로 한국의 보수는 다른 모습을 하고 있는 듯, 따라서 우리사회에 보수우의에 대한 제 기득권은 죽어도 양보 못하면서 애국주의도 없고, 민족주의도 없고, 공동체주의도 없고, 그래서 내전을 전쟁이 없다는 일각의 냉소적 비판은 적절하게 다가온다.

이들이 진정 보수우의세력이 되길 원하고, 그 의미가 내포하는 긍정적 의미를 획득하면 '자유민주주의'의 체제를 인정하고, 애국주의, 민족주의, 공동체를 위한 봉사, 도덕적 칭찬과 같은 가치들을 실천해나가면서 그것을 전통으로 만들 때, 한국의 보수는 아름으로 살아남을 수 있다'는 말에 귀기울어야 할 것이다.

하지만 단연계로 우리사회에 보수우의는 이러한 진정한 보수가 되기 위한 혁신과 변화의 물부럼을 추구한다면다기보다는 상황과 정세변화에 기회주의적으로 대처하면서 극단적인 대응을 해온 것이 지금까지의 현실이라는 점은 분분이다.

'반핵반김' 자유운동 4·19 청년대회' 현장에서 '반핵반김' 자유운동 4·19 청년대회' 현장에서 '반핵반김' 자유운동 4·19 청년대회' 현장에서



4·19 청년대회
the people of North Korea

적으로 장기간 인정받아온 제도와 가치의 유용성과 효과를 옹호하는 주'의'라고 말할 수 있다.

한국의 보수주의는 기득권자세술

이에 비춰보면 때 한국의 보수주의는 어떤가. 조갑제 〈월간조선〉 편집장은 2002년 6월호 〈편집장의 편집장〉에서 다음과 같이 말

우리나라의 현대사는 '레드 콤플렉스'라는 공포의 정착였다. 그리고 그 공포의 반대쪽에는 '안보'가 있었다. 한편으로 외부의 위협을 과장하여 국민을 끊임없이 공포 속으로 몰아넣고, 다른 한편으로 그 위에 안보하는 이들의 생존보장을 해주는 것. 그것이 우리 현대사 50년을 지배해온 권력자들이 자신의 이권을 유지하는 비결이었다고 역사가들은 말한다.

눈길을 끌었다. 현재 국립대인 충북대학에서 학장을 하고 있는 그는 '서울대 김진규 교수를 표적으로 한 서울사회과학연구소(서사연) 사건'이 터졌을 때 인류된 대학의 연구원 중 4명이 지금 교수를 하고 있다'며 '색깔논쟁은 수구세력의 불순한 정치적 의도에 의한 것이라는 것을 역사가 증명하고 있다고 말했다.

권정우 기자
tingyu@hanmail.net

"색깔논쟁을 중단하라" 학술단체 기자회견

지난달 29일(화) 학계인사들이 서동만 전 상지대 교수와 국정원 기조실장 임명과정에서 불거진 색깔논란에 대해 '색깔논쟁을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이날 학술단체협의회와 민주화를 위한 전국 교수협의회 등 교수·학술단체들은 지난 국가 정보원장 인사청문회에서 몇몇 국가 정보부보위 위원들이 서 교수에 대해 친북좌파리고 운운한 것을 두고 '서동만 전 상지대 교수는 북한 시장에 대한 학문적 업적이나 뛰어난 학자'라며 "북한시장에 대한 학문적 업적에 대해 '친



우리의 대표 브랜드-삼성

대한민국, 희망을 향해 모든 이들과 함께 출발합니다



더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 김재현

더 많이 나누겠습니다
— 나눔역

더 멀리 나다보겠습니다
— 인재역

대한민국의 꿈을 위해 책임을 다하겠습니다
— 희망역

"함께 기요, 희망으로!"

SAMSUNG

삼성

선배가 된 02학번 이야기

새내기야! 귀여운 너희들이 너무너무 좋아~♡ 그런데 있거? ... 부러워...

(이하은 어린선배 02학번)

내 소개를 먼저하자면, 저는 별로 작년같이 느끼지 않는 학년에 그나마 2002학년도에 이곳 외대에 밟을 디디개념 신소 같은 02학번 베리리 학파의 이아무개라고 한다.

(02학번이 새내기였던 말아 지나지 않은 이야기)

처음 새내기라는 말과 함께 이 학교에 들어 오게 되었던 학년, 나와 같은 학번 동기를은 세상 그 어느 누구보다도 내일 받는 존재였다. 적어도 같은 학년에 계획만... 나는 과에서 선수 같은 존경을 했었다. 아니 그보다고 말해봤자, 과에서 기쁜 항상 반복과 맞이주는 선배들이 있고 대 선배들은 자기 자신처럼 아끼고 챙겨줬다. 그래서 난 내가 어른으로만 알았던 나도 이제 그냥 학생은 차원이 다른 어엿한 인증(주민등록증)소유의 대학생이 되었다는 자부심 때문이어서인지 나와 이아리개인 보는 선배들이 때로는 아속하며도 했지만 이런 좋은 조건을 속에서는 언젠가하고 어려고만 살았다.

2교시가 끝나고 사물함에 넣어둔 전공 책을 찾으러 과실에 들렀다. 우연히 지나간던 조인성 선배, “이! 너가 이아무개로구나 오빠가 점심사니까!” 아니요, 아래 배에 고픈데... “안고파!” 안고온더리라고 이 오빠가 시무는 건데 먹어야지.” “네.” 당시 배가 고온더니 나에게 너무나 기쁜 일이었지만 좋은 내색을 하고만 있을 수는 없었다. 감히 하늘같은 선배에게 점심을 얻어먹다니! 어くん 선수들 내 미안함을 번으로 충돌했다. 2000원짜리 돈까스. 하지만 쉽게 돈까스를 고를 용기까지 내게 없었다. 새내기였으니... 조그만 목소리로 “리마이어...” “왜... 돈까스 먹어?” 나는 순간 어쩔 수 없다는 듯이 “네.” 하고 말았다.

5·4교시 수업을 마치고 간 과방, 책을 보는 예비어린선배 한 명이 나를 반갑게 맞이해주었다. “새내기?” “네.” “이야 반갑다! 신소학 번이라 그런지 역시 다른데! 오빠가 먹을 것을 좀 시켜줫겠다.” “이내에도 이가 먹어서 배불 려요.” “먹여줘.” 간간 들어온 미안한 원인 선배 “어머 험! 오랜만이에요.” 그 선배를 향한 예비어린선배의 무미건조한 대답 “응!” “이 선배 오랜만에 먹었는 것 좀 시주세요.” “아이야! 형 새내기 시워야 돼! 돈 없어!” 지금 생각하면 그때 왜 마냥 기분만 뻔했던지 모르겠다.

예비어린 선배가 와서 그런지 사람들은 함께 모여 술을 마셨다. 갑자기 예비어린 선배가 내 앞으로 오며 학번들에게 선전포고도 하듯이 하는 말 “아 나는 새내기 앞에 앉을께.” 칙칙한 좌내기들이 망망한

“오빠 위에요 진짜 섭섭해요.” 아마 난 그때 짐작 어린 눈으로 쳐다보는 선배언니들의 시선을 묘한 착 피했던 것 같다.

집과 놀다가 걸. 너무 위해사인지 내 걸을 걸이와 명랑의 카지(?)지를 쓰고있었다. 아직 도 용서할 수 없는 내 괴어의 시agan, 속이 매스도 고개를 숙이고 속에서 오를 끌어내기를 시도하고 있는데 마침 안 좋은 한나라 새내기 디가은 송하고 선배 “이내가야 편찮.” 와 동시에 나는 예고 언니를 쳐다보았고 입 속의 알탕+향이슬+풀리+걸빵이 무침은 선배의 하이다

만으로도 기다림은 자루하지 않았었다. 겨울이 지나면서 여름 불이 오듯이 복어리 같은 03학번 후배들도 “언니, 오빠.” 그리고 ‘선배’라는 이름으로 나를 부르며 나눴다. 아직 숨에 펼쳐놓은 초롱초롱한 눈동자는 볼 햇살에 풍취 더 친환경 보였다. 나도 이제 어떤 책임감 같은 감정을 느끼기 되는구나. 후배들을 보면 일부로 리도 가서 맛있는 것을 사주고 싶고 학교 내에서 본만이 아니라 밖에서도 서로 연락하면서 친구들한테 “애가 우리 과 후배야” 하며 자

선배들에게 나는 어려겠지만, 나는 더 이상 새내기 아니다. 어떤 특별한 전환점도 없었던 것 같아도 나도 모르는 사이 이미 새내기의 자리를 자연스레 내어주고 선배가 되어 있었다.

군데간 조인성 선배가 학교에 놀라왔다. 너무 반기운 나머지 “오빠 저 이루께요 진짜 오렌이마다 오빠.” “어 아 이런 03학번이 그렇게 예쁘다니? 아니? 와우! 새내기들!” “오빠 너무 해요” 같은 시기 선배들이 했었던 말을 내가 하고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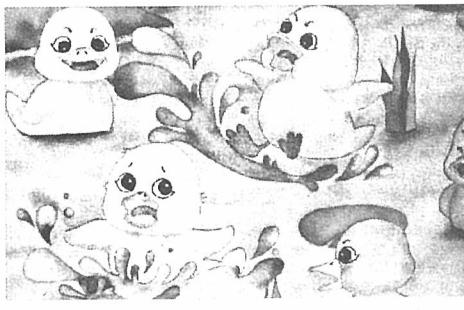
오랜만에 동기들끼리 모여 술을 마셨다. 그 동안 군대에 간 친구들도 있고 유흥을하거나 학원에 다니는 예들이 많아서 자연스레 만나지 못했었다. 그런 참에 이런 자리에 미치 걸 증거했던 목에 남아가는 단을 한 모금 깔았다. 당연 주제는 후배들에 관한 내용이다. 누가 잘 생겼나 누가 예쁘네, 누가 술을 잘 마신드라드라 청진에서 누가 잘 뛰었나니...

작년까지 꽤 대표였던 나머지 술에 훈련하기 위해 말을 깨웠다. “얼마 전에 과방에 있었는데 03학번들이 많이 늘어난단 걸 도금 같았다. 그때는 그들이 우리도 술을 우리의 자리를 놓아주어버렸지.” 잠시 틈을 들었더니 “우린 아직 준비가 안됐는데... 그렇자? 선배가 된다는 거 나눠씩 배워 가는 걸까? 아무것도 모르면 새내기에서 이렇게 자연스러운 선배가 되어서있듯이.” 모두가 그리고 싶었던 말이었다.

주인공의 자리는 내주었지만 새내기 부여받은 멋진 조연의 자리는 소홀한 허락했다. 연기

에 있어서도 경쟁이 있고 연춘이 있는 자리이

훌륭한 조연역할을 해낼 수 있을 테니까...



한번 치마에 흐르고 말았다. 아무 말도 못하고 어정쩡한 표정으로 눈을 반 웃은 반 씀이 있던 나에게, 그때 그 선배는 ‘괜찮아’라며 다시 내 등을 두드려 주었던 것 같다.

전날의 과정으로 쓰린 속을 미국언론도 달래주던 과방. 선배들은 과방에 술을 우리의 자리를 내어 주고 있었다. 계시판의 MSN주소들과 생활을 적어놓은 그들은 점점 02학번의 것으로 제워졌고, 사람들은 역시 우리를 위한 것이 아니었다는 듯이 빠져있었다. 그들과 함께 모여 수내를 맡고 있으면 선배들은 들어오기도 감기기 바쁜 일이라도 생겼듯이 인사만 하고 나가버렸다. 언젠가 술자리에서 선배들은 우리에게 말했다. 우리과에는 이제 너희 02학번 새내기 품의 것이라고... 어느새 배경이 두둑해진 나는 만이 있어도 지나는 선배를 불잡고 예교를 맴았다. “선배 지금 아이스크림 못 먹으 면 죽을 것 같아요”

랑하고 싶었다. 괜히 후배들이 “언니 이 영어 문장 좀 해석해 주세요”라든지 “어떻게 해야 성적 잘 받았어요?”라고 물으면 어떤 식으로 평점을 대 위기를 모면해 기자?라는 생각들을 하면서 하루하루를 보냈다.

선배들이 인사하는 것만으로도 괜히 뿐듯하고 미남 기분이 훨씬 어느 날 한 남자 후배가 나에게 다가와 말했다. “선배 밥 좀 사주세요 요, 배고파.” 순간 기분이 으르렁했다.

선배라는 말과 밥 사달라는 말. 내 가 불과 얼마 전까지 선배들

에게 사용했던 말이다. 아니 지금도 사용하고 있지만,

아직



(손해가 된 친한 02학번 이야기)

보다.

선배가 된다는 것, 그 설레임

작혜미 기자
ganzhyemi@hanmail.net

책소개**투란도트**

카풀로 고기 차음 / 달콤 춘판 / 9,000원

투차니의 별작자이 최후의 작품으로 우리에게 널리 알려진 오페라(투란도트)의 원작소설. 디비도국의 왕자였으나 나라를 잃고 떠도는 칼리포 왕자와 파거의 아픈 기억 때문에 남성암호들을 지녀 세상에 사랑은 없다고 믿는 일음처럼 차가운 투란도트 공주의 문학적인 사랑이야기.

투란도트 공주는 결혼을 거부하기 위해 청혼하는 왕자에게 세자기 수수께끼를 내는데 이 수수께끼를 맞추지 못하는 자는 죽음뿐이다. 수많은 왕자들이 수수께끼를 맞추고 끊임없이 죽어가지만 칼리포 왕자는 이 무모한 수수께끼에 도전하게 되고 공주를 향한 목숨을 친 사랑을 시작하게 된다. 답을 모두 맞춘 왕자는 여전히 달려있는 공주의 사랑을 빙기위해 오히려 공주에게 차기력을 품추리는 새로운 제언을 하게 된다.

그를 향상동안 사랑한 시녀 뮤는 그의 사랑을 들키 위에 금내 왕자의 이름을 말하지 않고 죽음을 막았다. 인스턴트식 사랑에 이숙한 현대人们对에게 진정한 사랑의 의미와 가치를 깊게 주는 작품이다.

세일즈맨의 죽음

때: 5월 19일(수) 오후 7시30분

곳: 예술의전당 관현극장
관람료: 54,000원 / 54,000원 / 54,000원
문의: 02-751-9008 ~ 10 www.credia.com

매튜 본의 「백조의 호수」

때: 5월 20일(목) ~ 6월 19일(일) *월요일은 쉼

시간: 주중 7시30분 / 토·일 4시, 7시30분
곳: 문예전용홀예술극장 대극장
관람료: 19,000원 / 19,000원 / 19,000원
문의: 02-782-0010 www.e-edu.com

전시

Image Korea 展(미미지 코리아 전시회)

일자: 5~25일

장소: 예술의 전당 청당 홀전람 디자인 미술관

새내기 영화제 준비위원회

- 5월의 테마 : 예술은 문학의 표본이다

파리넬리 Farinelli (1994, 벨기에)

감독: 제라르 고르비옹 Gérard Corbiau
출연: 스테파노 디오시니 Stefano Dionisi
엔리코 노 베르소 Enrico Lo Verso
제로엥 카리에 Jeroen Krabbe



18세기 유명한 카스트리로 중의 하나인 파리넬리(Farinelli)의 생애를 다룬 작품.

인생과 음악에 대한 열정으로 뛰어넘는 파리넬리, 자신의 육망을 제우기 위해 그를 거세하는 험 리카르도. 파리넬리를 잘살피는 동시에 음악가 헨델, 파리넬리에게 사랑을 바치는 여인들, 바로 이들의 어긋난 사랑과 운명, 그리고 예술.

때: 5월 19일(수) 늦은 5시30분
곳: 서울대학교 대학원 1층 소극장 (6104)

▶ 다음주 상영작: 5월 26일(수) 낙인 하프 워크

